

핵보유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형태 분석

박 휘 락*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채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전략을 분석하였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남북한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한 후 도발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형태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①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②주도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과 주한미군 위협 ③서북 5개도서 등에 대한 국지도발 ④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 ⑤핵위협 하 전면공격 등의 도발을 결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중 ①번 중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②번과 ③번은 물론이고, ④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필요한 대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 북핵, 북핵 위협, 북핵 대응, 한미동맹, 핵공격, 미사일 시험발사

* 국민대학교 교수

I. 서론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하여 이룩된 진전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상징적 성과는 있었을지 모르나 현실적 성과는 없었다.¹⁾ 그 사이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되었고,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어떤 실질적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협상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김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걸겠다고면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북한은 수십개의 수소폭탄 급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3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사망자를 예상하였다고 말했듯이 잘못 관리할 경우 대량살상의 핵전쟁으로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핵보유 상태에서 북한이 채택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예상하고, 필요한 대비책과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부까지 한국은 ‘3축 체계’라는 명칭으로 북한의 핵공격

1) 김형빈·박병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통일전략』, 제19권 1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p.35.

가능성에 대하여 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 방어(KAMD), 대규모 응징보복(KMPR) 등의 대응방안을 발전시켰다. 북한의 핵 전략과 핵사용 각본에 관한 연구도 일부 추진되었다.²⁾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비핵화에만 치중하면서 ‘3축 체계’ 실행을 위한 태세를 그다지 강화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노력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필자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유형과 이에 대한 대비방향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³⁾ 다른 학자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의 논문도 북한의 도발 각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핵전략과의 연계성은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고, 특히 ‘새로운 길’로 위협하는 현 상황의 절박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현실적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필요한 대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그리고 이에 근거한 핵전략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핵전략을 포함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2) 박휘락,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제60권 4호 (안보문제연구소, 2017), pp.29-52;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104권 0호(한국국방연구원, 2014), pp.155-196; 최정민,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한국군사학회, 2014), pp.11-40;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pp.179-236.

3) 박휘락, “북핵 위협 하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26권(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pp.233-261.

평가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에 근거하여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각본을 소개하고, 제5장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요구되는 대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검토

1.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

핵무기가 군사적 수준에서만 활용하거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엄청난 것은 분명하지만, 무기 중의 하나인 것도 분명하다. 즉 아무리 위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는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 개발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말한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치)의 연속이다”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구호를 통하여 정치와 군의 일체성을 더욱 강조해왔다.⁵⁾ 북한의 핵전략은 당연히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북한 조선노동당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그것

4)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p.75.

5) 이대근, “당·군 관계와 선군정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179.

은 “전(全)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⁶⁾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또는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이다. 북한체제에서 최상위 규범으로 인식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강조되고 있다.⁷⁾ 실제로 김일성은 1965년을 남침 시점으로 잡은 후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강조하면서 본격적 준비를 했고, 1975년 4월에 중국과 남침에 관하여 협의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⁸⁾ 김정은의 공격적인 성향과 자주를 강조하는 정책노선을 고려할 때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오히려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⁹⁾

정치와 군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책은 당연히 북한 공산당이 지향하고 있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데

6)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통일연구원, 2013), p.213;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조선대학교군사연구소, 2015), p.4.

7)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한구국방연구원, 2017). p.146.

8) 금원섭·황대진, “김일성, ‘더 늙기 전에 한 번 더 南쪽과 겨뤄보고 싶다’; 中 외교문서에서 드러난 ‘北의 제2 한국전쟁 준비’,” 『조선일보』 (2013. 10. 24), p.A3.

9) 이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과 변화-김정은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6권 3호(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pp.7-8.

기여하는 것이라야 하고, 북한군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¹⁰⁾ 군대는 당과 국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육성하여 공산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상태이고,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무력은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 즉 남한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경우 군사정책은 정치와 군 간의 연결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군사정책을 구현해 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군사전략이다. 그래서 북한군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 즉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추진하여 왔고, 이것이 북한 군사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전군의 현대화’는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기를 만들며 나라의 공업발전 수준에 따라 인민군대의 무기를 더욱 현대화하고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현대적 무기와 채래식 무기를 옹계 배합”하는 측면인데,¹¹⁾ 이를 위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이다. 핵무기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군사정책의 결과물이고, 군사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10)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31.

11) 위의 글, pp.32-33.

군사전략의 핵심은 실제 전쟁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運用)할 것인데, 그 내용은 고도의 비밀로 관리될 것이어서 파악이 어렵다. 다만, 한국 국방부에는 북한의 군사전략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로 설명하면서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¹²⁾ 북한의 군사전략은 가용한 모든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배합하여 기습공격을 가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그 동안 달성한 성과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려는 방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은 소위 ‘7일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것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하에 수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³⁾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지속적인 국제제재를 받고 있고, 그 결과 경제역량이 더욱 미흡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속결 기습전과 정치적 협상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전을 수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압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단기속결 기습전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러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석권해 나간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12) 국방부, 『2018 국방백서』 (국방부, 2019), p.21.

13) 김강녕, 앞의 글, p.3.

3.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가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북한의 군사 전략이 ‘단기속결전’이라면 북한의 핵전략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가 아무리 위력이 크다고 해도 무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방이나 한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핵무기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은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다르지 않게 핵무기도 “당규약에서 규정한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 과업의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⁴⁾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후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다른 핵보유국”이나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⁵⁾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필요시에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사용하면 한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¹⁶⁾

특히 핵무기의 위력이나 전략적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전략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숫자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재래식 전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온 점이 있어서 북한은 재래식 중심의 전략은 비교우위를 갖

14)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한국국방연구원, 2009), p.99.

15)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 제2조. 4조, 5조. 권태영 외, 앞의 책, p.192

16) 위의 책, p.184.

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는 결정적인 비대칭적 우위를 보유하게 된 상황이고,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사용할 경우 결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북한의 군사전략=핵전략으로 인식 및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에 대한 북한 핵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할 때처럼 핵공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공격에 대한 위협으로서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핵무기 사용의 위협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⁷⁾ 북한이 재래식 전력만 사용하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도 북한의 핵무기는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¹⁸⁾ 실제로 북한은 “3일 전쟁” “일주일 전쟁” “7일 전쟁”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배합한 대남공격 계획을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한다.¹⁹⁾

남한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 전략을 구현하는 전제는 미국의 한반도 축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 응징보복을 가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한, 북한의 공격이 성공하

17) 위의 책, p.185.

18) 전호환,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한국군사학회, 2007년), pp.60-62.

19) 김태현, 앞의 글, pp.153-155.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일방적 공격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을 공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공격용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에 착수하였고, 비핵화를 미끼로 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 응징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은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이다.²⁰⁾ 이것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으로서 핵강대국의 핵공격보다 더욱 큰 피해는 끼치지 못하지만, 1-2개 도시는 확실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그 피해를 두려워하는 핵강대국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²¹⁾ 다만, 이 최소억제전략을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3-4척을 구비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1척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인도나 파키스탄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뢰적 최소억제(credible minimum deterrence)’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SLBM이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억제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대규모 핵 응징보복을 차단한다는 개념이다.²²⁾ 2018년 신년사에

20) 박휘락,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한미동맹 무력화 전략,” 『통일전략』, 제18권 3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pp.121-124.

21) Tom Sauer,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p.9; 최정민, 앞의 글, p.31.

22) Tanvi Kulkirni and Alankrita Sinha, “India’s Credible

서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그의 책상 위에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강조한 것도 이러한 ‘신뢰적 최소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신뢰적 최소억제’를 위한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필요시에 미국의 기지나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이 남한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의 이행에 나설 경우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는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결국 북한과의 협상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강화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북한의 ‘신뢰적 최소억제’ 노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Ⅲ.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판단

당연히 북한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국제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도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 기초는 그들의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ember 2011), p.2; Iftekhar Ahmed Chowdhury,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295-11 (November 2015), p.4.

역량과 남한 역량의 비교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강조하는 상대와의 군사력 상관관계(correlation)이 유리해져야 국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도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요인은 변화하여 시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북한과 남한 군사력의 상대적 비교는 금방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기초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핵능력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종료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50년대에 다수의 기술자를 소련에 보내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1960년대에는 IRT-2000이라는 소련의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1980년대에는 5MWe 영변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완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여 노출됨으로써 위기를 맞았으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틀을 활용한 ‘9·19 합의’ 등을 통하여 서방을 기만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거쳐,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정보가 워낙 제한되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몇 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

여 공개한 공식적인 문서는 없다. 다만,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8년 10월 1일 국회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북한이 20-60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²³⁾ 세계 다수 국가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과학자협회(FAS)에서는 2019년 12월 현재 북한이 25개의 핵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늘어날 것이다.

더욱 위험한 요소는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의 능력이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구비하고 있고, 이의 대부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²⁵⁾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일로 최소한 1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300-700km 정도),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1,300km 정도), 50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2,000-4,000km)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⁶⁾ 여기에 추가하여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시작하여 총 13번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로 불리듯이 요격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고 할 수

23) 김강녕,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통일전략』, 제19권 1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p.133.

24)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 page,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검색일: 2019. 12. 5).

25) 박균열·방원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 전략,” 『통일전략』, 제18권 1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p.175.

26)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p.19.

있는 전술미사일, 400밀리 급(級)의 방사포, 600밀리 급의 방사포가 그것이다.²⁷⁾ 특히 600밀리 방사포의 경우 최초에는 17분 만에 2탄을 발사하였으나 2019년 11월 28일 제3차 시험발사에서는 30초로 단축함으로써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연발사격을 통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핵무기 투하도 가능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요격당할 걱정없이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 셈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북한의 핵능력은 ICBM을 지향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은 2017년 ‘화성-12형’과 ‘화성-14형’ 등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기술을 축적한 후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함으로써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정부도 북한이 ICBM의 완성에 수개월만 남겨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²⁸⁾ 또한 북한은 해저로 이동함에 따라 탐지가 되지 않아서 보복의 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소억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SLBM의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능력으로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최소억제를 달성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를 차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군기지나 영토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는 한국의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인데, 이것은 휴전선에서 100km를 조금 상회하는 거리

27) 유용원, “북한의 첨단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충호』, 제 44호(2019. 11), p.5.

28)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Washington D.C., DoD, 2018), p.11.

이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이 낮은 단거리 핵미사일로도 공격이 가능하고, 미군의 기지가 밀집한 일본 오키나와(평양에서 1,500km)도 노동미사일이나 북극성-2형으로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군의 영토이면서 주요 군사기지인 괌(3,400km)은 무수단 미사일, 알래스카(6,000km)는 화성-12형, 하와이(7,600km)는 화성-14형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2. 북한의 재래식 전력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총 군사력은 128만 명이 넘고, 엄청난 숫자의 전차, 야포,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발전을 추진하여 질적으로는 다소 우위를 갖고 있으나 수적으로는 열세이고, 현재도 전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수적인 열세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표 1>와 같다.

<표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병력	육군	46.4만 명	1110만 명
	해군	7.0만 명(해병대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계	59.9만 명	128만 명

주 요 전 력	사단	40	81
	전차	2,300여대	4,300여대
	야포	5,800문	8,600문
	전투함정	100여척	43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70여척
	전투임무 기	410여대	810여대
	헬기	680여대	290여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762만여 명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244.

현재 북한은 육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수도권을 포격할 수 있는 장거리포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특수전 병력이 20만 명에 달하여 다양한 형태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²⁹⁾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이되어 있는 남한사회의 결속력과 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특수전부대를 통한 후방교란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고, 전시에 지정된 민수공장을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 북한이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핵심부를 장악하여 물자를 확보할 경우 장기전 수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9)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p.22-23.

30) 위의 책, p.27.

핵무기에 비하면 그 위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북한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고....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북한이 최초 공격 시 화학무기를 남한군의 진지에 사용할 경우 전방의 방어선이 금방 붕괴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생물학무기까지 사용한다면 그 혼란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컴퓨터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공격적인 사이버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남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양적으로 비교해보면 총병력은 59.5만 명 : 128만 명, 사단수는 40개 : 81개, 전투함정은 100척 : 430척, 전투임무기는 410대 : 810대로 북한이 양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³²⁾ 경제력을 비롯한 20여개 요소를 적용하여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는 세계화력지수(Global Firepower Index)에 의하면 남한은 세계에서 7위, 북한은 18위로 남한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군사외적인 요소의 비중이 워낙 크게 작용하여 속전속결을

31) 위의 책, p.26.

32) 위의 책, p.244.

위주로 하는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군사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핵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군사력의 비교는 의미가 적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재래식 전력에 관하여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후 남한과 북한이 700 : 676으로 남한이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한 후, 핵무기가 갖는 승수효과를 고려하여(북한은 자체개발이라는 이유로 40%를 부여하고, 한국은 자신의 무기가 아닌 미국의 핵무기를 활용한다고 하여 20%의 승수효과를 부여) 남북한 군사력이 840 : 945.4(100분률로 환산하면 100 : 113)로 북한이 우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³³⁾ 특히 북한이 단기속결전을 감행하여 전쟁지속능력이 덜 필요할 경우 재래식과 핵전력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840 : 1,589 즉 1 : 1.9로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하였다.³⁴⁾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단기속결전을 수행한다면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700 : 1,589로서 1 : 2.3이 된다. 3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시작할만한 우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필자는 핵무기의 위력을 기존 전력의 승수효과 정도로만 고려하였지만,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더욱 극단적인 불균형을 갖게 된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서 아무리 우수하거나 대규모 재래식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1941년 12월 진주만 피습 후 1945년 8월

33) 박회락,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이론적 분석,” 『의정논총』, 제13권 2호(한국의정연구소, 2018), p.242.

34) 위의 글, p.242.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4년 가까이 재래식 무기로 승리를 추구하였지만 실패한 것을 2발의 핵무기 투하로 성공시켰다면, 그 핵무기 2발의 위력은 미국이 4년 가까이 투입한 모든 재래식 전력의 위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비핵국가가 핵위협을 받는다면 “초토화되거나 1945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할 정도로³⁵⁾ 핵무기의 위력은 크다.

4. 북한의 도발 가능성 평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대남전략에서 결정적인 우세에 처하게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전력을 구비한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남도발을 감행할 수는 없다. 결국 6.25전쟁 때도 그러했다고 분석되었듯이³⁶⁾ 북한이 도발을 결심하고자 한다면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도발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미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위협하였고, 비핵화를 미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실시하여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주한미군과

35)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New York: McGraw-Hill, 1985), p.141.

36) 서주석,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냉전체제 후의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6집(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7), p.26.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시키거나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균열을 발생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한미군은 건재하고,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으로서 한국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현 한미연합체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방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이러한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발발을 포함하여 국제관계에서 내려지는 결정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인식(誤認識, misperception)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⁷⁾ 북한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폐쇄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충분한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결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결정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인식 등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인하여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³⁸⁾

현재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기대 하에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은 공격의 계획만 잘 수립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국가는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올 때 전쟁을 발발한다고 한다.³⁹⁾ 북한의 핵무기 폐

37)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2011), p.402.

38) Paul French, *North Korea: The Paranoid Peninsula* (London: Zed Books, 2005), p.279 ; 홍관희,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1): 전쟁 촉발 요인,” 『월간북한』 (2017년 8월), p.70.

기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의 정부와 군대는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낮춘 상태이고, 군사력 감축이나 병영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 평양에서 맺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다면서 전방지역의 감시를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되는 공격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한에 대한 결정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IV.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의 형태

북한은 나름대로 다양한 대남 도발방안을 마련해두고, 장단점 평가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겠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세일 수밖에 없는 한국은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열거한 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대비태세의 수준을 조정해야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범위를 좁혀 나가야할 것이다.

39) Arthur A. Stein, "When Misperception Matters," World Politics, Vol. 34, No. 4(1982), p.512.

1. 가능한 방안의 열거

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ICBM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게 그들의 엄청난 능력을 알리면서 그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고, 미국이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비록 국제사회를 자극하여 경제제재가 강화될 수는 있으나 이미 경제제재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이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조치 이외에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안전한 방안일 수 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2017년 9월 3일 250kt에 달하는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매가톤 급의 수소폭탄을 실험하거나 중성자탄과 같은 새로운 첨단 핵무기를 실험해야 미국 등을 위협할 수 있는데, 북한의 기술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대규모 핵실험을 실시하면 인접한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대신에 ICBM 시험발사의 필요성은 핵실험보다 훨씬 높고, 부작용도 적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이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2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 동안 적지 않은 기술적 진전을 이룩했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나 다탄두 기술을 입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미사일 엔진을 테스트하였고,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위력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 주도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과 주한미군 위협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들의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더욱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남한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위협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무역을 붕괴시키고, 외국인 탈출 유도하며, 그럼으로써 한국에게 북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할 것을 종용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는 급격히 하락될 것이고, 한국에 투자해 두었던 외국자본은 철수하게 될 것이며, 한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타협이나 굴종적 제안을 선택할 경우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불안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상도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동시에 또는 다소 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국 정부에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낼 수 있다.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무

기로 한국의 도시를 공격하거나 군사적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는 핵공격의 위험이 워낙 크다면서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되 그 조건만 남한에 덜 불리하게 타협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남한 사회는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철폐시켜야만 그들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강요할 수도 있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휴전선에서 100여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강경하게 거부하겠지만 한국에서 미군 때문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발생할 경우 철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도 낮지는 않다.

다. 서북 5개 도서 등에 대한 국지도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거나 한국을 위협하여 연방제 통일을 강요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 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경우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서북 5개 도서 등을 공격하거나 점령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응의지를 시험하면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구실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2010년에 자행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군함을 공격하거나 한국의 영토에 포격 등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한국과 미국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 중 일부나 전체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의 더욱 공세적인 도발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북한은 30분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대규모 상륙정들을 보유하고 있고, 악천후를 활용할 경우 한국이 서북도서에 대한 방어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함으로써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 특히 서북 5개 도서는 유엔군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확전 가능성을 덜 우려해도 된다.

라. 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길은 남한을 점령하는 방안일 것인데, 남한 전역을 일거에 점령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인 서울을 먼저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한 후 나중에 남한 전역으로 점령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지 않아서 성공의 가능성도 없지 않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밤사이에 기습공격으로 점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만 점령한다면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에도 한걸음 다가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에 설 수 있다.

북한에 의한 서울의 군사적 점령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하여 한국군은 휴전선 근처에 대한 정찰과 훈련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습공격도 가능할 수 있고, 철원 지역에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명분으로 지뢰를 제거하면서 12미터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김포지역의 경우에도 하상(河床)에 관한 정보를 남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라서 도하작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철원과 김포로 서울을 원거리에서 포위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단거리 접근로인 파주-문산 지역에 비지속성(非持續性) 화학작용제를 사용하여 한국군 방어진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신속하게 전진하여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북한의 강점 중 하나인 사이버전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의 기간산업 및 행정망을 마비시킬 수 있고, 특수전부대를 투입하여 서울의 핵심부를 조기에 장악할 수도 있다.

서울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 북한은 모든 군사적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면서 그들의 철수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협상하겠다고 공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철수하겠다고면서 그 조건을 협의하자고 미국에게 제안할 것이고, 동시에 한미가 반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이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여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서울을 철저히 공산주의사회로 변모시킬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서울의 장래를 결정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상은 장기화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회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점령 지역을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전국의 통일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마. 핵위협 하 전면공격

북한도 그들의 생존을 걸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서 쉽게 결심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1950년도의 6.25전쟁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서울을 확보한 후 전국 점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남한의 미흡한 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남한 전역을 일거에 석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7일 전쟁계획'은 일주일 내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립된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은 6.25전쟁과 유사한 계획으로 남침하겠지만, 주공방향이냐 작전의 단계화 차원에서 다소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파주-문산 지역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주공 방향을 기만하면서 철원 축선과 김포 축선에 정예 전투력을 투입하여 서울에 대한 양익 포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25전쟁과 달리 작전을 단계화하여 중간목표를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에 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해상을 통한 평택 부근 상륙작전, 그리고 특전부대에 의한 평택 주변의 집중적인 공격 및 혼란조성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동해안의 7번국도 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투입하여 부산을 향하여 신속하게 진격함으로써 한미 양국군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대응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공세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은 한미 양국군이 반격할 경우 한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북한은 평택기지를 포위하여 미군 철수를 먼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을 직접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 의한 즉각적인 전쟁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회피하면서도 미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도록 하면 남한은 쉽게 석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평택기지의 야포 사정거리까지 접근할 경우 미군은 기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경우 남쪽으로 이동하여 축차진지를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 선박으로 일본까지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만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은 핵무기 없는 한국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실제로 이후의 남한 석권은 크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분석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애써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국제적 경제제재에 의하여 고사되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열거한 다음에, 위험과 실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ICBM 시험발사와 같은 위험부담이 적은 방안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에 대한 제한적 공격은 물론이고, 6.25전쟁과 같은 전면적 침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

되면서 국제적인 신인도가 낮아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그것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내린다면 남한의 혼란상은 극에 달할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미군기지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북한이 위협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상당한 비중으로 전달될 것이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각본은 서울에 대한 전격적인 기습공격이다. 서울은 휴전선에 워낙 가깝고, 서울 북방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북한군은 삼시간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철원과 김포의 접근로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어서 양익포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한국의 정치 및 행정 중심지라서 서울만 점령하면 한국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고, 장기적인 점령을 통하여 북한이 서울점령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한국은 쇠락하면서 결국은 북한의 통제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밤 사이에 진행되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손쓸 틈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이 붕괴되어 미국의 핵우산만 제공되지 않으면 한국을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북

한에게 전쟁발발의 유혹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에 적극적이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도 과거에 비해 원활하지 못하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상당할 정도로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의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6.25전쟁의 경우에도 미국이 고문단 500명만 남긴 채 미군을 철수시킨 1년 후에 발생하였다.

한미동맹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한국의 대비태세가 철저하다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쉽게 결심하지는 못한다.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되면 국제사회가 규탄하면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어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한국의 대비태세는 너무나 미흡하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를 그다지 경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가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전쟁은 없다”면서 북한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군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도 무척 약화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무력 적화통일의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오만에 의한 전쟁발발의 가능성도 낮지 않다. 또한 장기집권이 보장되는 독재자의 경우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침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다가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⁴⁰⁾

40) 김재한,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문제,” 『통일전략』, 제18권 2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p.200.

IV. 결론 : 한국의 과제

북한의 비핵화 즉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북한에게 핵무기 추가 생산 및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간만 부여하고 말았다. 이제 정부는 핵보유 북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헌법에서도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가 대통령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전반적인 전쟁억제와 전쟁대비는 정부가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핵보유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북핵 및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북한에 의한 다양한 협박,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공격 및 상륙작전,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한국에 대한 전면적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상황별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군에게도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각본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대비책을 건의 및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북핵을 포함한 이러한 심각한 위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총력적인 대비노력을 요청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과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여 방위비분담을 상당할 정도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고,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미국의 상대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군대이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두를 적극적으로 열거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대비의 순서와 정도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한다. 북한이 백령도와 같은 서북도서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거나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가하거나 6.25전쟁과 같은 전면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한 대비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미흡한 사항은 조기에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신속하게 북한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어렵게 만들거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군은 과거에 한때 사용했던 적이 있는 ‘즉응 공세전략’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공격의 위협 하에서는 적 지역으로 전장을 확대시켜

야만 핵무기 공격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북한군의 신속한 진격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군은 북핵 대응으로 모든 업무의 중점을 전환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군 조직도 북핵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을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거나 북핵 방어를 전담하는 '합동방공사령부' 창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수뇌부는 반드시 사살하겠다는 개념 하에 참수작전(decapitation)을 위한 부대와 능력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북한의 공격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비태세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특히 지식인들은 현 정부의 안일을 적극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시정하도록 하거나 국민들에게 냉정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를 압박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폭발하였을 경우의 생존방책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각자가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주도의 공산화 통일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만전지계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다.

논문투고일 : 2019.12.12

심사완료일 : 2019.12.25

게재확정일 : 2019.12.29

□ 참고 문헌

- 박휘락,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한미동맹 무력화 전략,” 『통일전략』, 제18권 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 김강녕,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통일전략』, 제19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조선대학교군사연구소, 2015.
- 김재한,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문제,” 『통일전략』, 제18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
- 김형빈·박병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통일전략』, 제19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 박균열·방원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 전략,” 『통일전략』, 제18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104권 0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박휘락,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 『의정논총』, 제13권 2호, 한국의정연구소, 2018.
- 박휘락, “북핵 위협 하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26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 박휘락,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제60권 4호, 안보문제연구소, 2017.
- 서주석,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냉전체제 후의 재조명,” 『한국정치

- 외교사논총』, 제16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7.
- 유용원, “북한의 첨단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충호』, 제44호, 2019, 11.
- 이대근,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통일연구원, 2013.
- 이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과 변화-김정은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6권 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 전호환,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 한국군사학회, 2007.
- 최정민,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 한국군사학회, 2014.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홍관희,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1): 전쟁 촉발 요인,” 『월간북한』, 2017년 8월.

Chowdhury, Iftekhar Ahmed,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295-11, November 2015.

Clausewitz, Carl von,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Washington D.C.,, DoD, 2018.
- French, Paul, *North Korea: The Paranoid Peninsula*, London: Zed Books, 2005.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 Kristensen, Hans M. and Norris, Robert 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page,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검색일: 2019년 12월 5일).
- Kulkirni, Tanvi and Sinha, Alankrita, "India's Credible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mber 2011.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85.
-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01.
- Stein, Arthur A., "When Misperception Matters," *World Politics*, Vol, 34, No, 4, 1982.
- Stoessinger, John G.,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2011.

〈Abstract〉

An Analysis on Nuclear Armed North Korean Military Options to South Korea

Park, Hwee-Rhak(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North Korean military options to unify the whole Korean Peninsula on its terms with the threat or use of its nuclear weapons. It suggests preparatory measures for South Korea as well.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including nuclear one, compares the military pow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decide the probability and type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As a result, this paper introduced five North Korea military options to South Korea. These are ① the resumption of nuclear and/or missile tests ② a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and US forces in South Korea to unify South Korea ③ an attack to South Korean islands in Northwestern Sea ④ a surprise attack to Seoul ⑤ all-out war under nuclear threat. It evaluated that another test of long range missiles could be most probable option by North Korea, but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option ②, ③ and ④ as well.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grim re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epare for the worst case scenario based on trinity between the government, military and people. It should als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or use.

Key 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Nuclear Threat, Nuclear Preparedness, US-South Korea Alliance, Nuclear War, Missile Test